



수원시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

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hannya@suwon.re.kr
한연주 연구기획팀 팀장 김재이 위촉연구원 정보라 위촉연구원

요약

수원시 1인가구 비율 인근 지자체(성남, 화성, 용인)에 비해 높게 나타남

- 1인가구 비율: 수원시(32.8%) > 성남시(32.5%) > 화성시(29.9%) > 용인시(24.9%)
- 청년 1인가구 비율은 38.5%로 전국(28.8%), 경기도(28.4%)에 비해 높음

수원시 1인가구 세대별 특성 상이, 세대별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 필요

- [청년 1인가구]** 주거 안정성 낮고 정서적으로 취약(우울과 자살생각 비율 높음)
→ 정책방향: 주거 안정망 구축, 정서적 회복 지원
- [중년 1인가구]** 세대 내 이질성(소득, 주거 격차) 높고, 재취업 기회 낮음
→ 정책방향: 경제적 지원(중장년 재취업), 지역자원과 연계, 돌봄 네트워크 구축
- [노년 1인가구]** 신체, 정서적 어려움 겪고 가족과 사회 돌봄을 받는 비율 높음
→ 정책방향: 사회적 고립 방지, 건강관리(홈헬스케어, 운동 등)

정책제언

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한 추가 정책 제안

- 청년 1인가구의 주거와 정서적 회복, 중장년 1인가구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, 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 도입 필요

| 구분 | 청년 1인가구 | 중장년 1인가구 | 노년 1인가구 |
|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수원시 정책 (~2024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주거] 새빛 청년존, 청년 월세 지원, 수원전월세 상담센터, 자립준비청년, 셰어하우스[정서적 회복] 청년고민상담소새빛호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지역자원연계] 건강가정지원 센터, 1인가구 지원사업중년교육프로그램, 평생교육 프로그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사회적 고립]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건강응급지원,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, 시 활용 위기 가구 발굴지원[건강관리] 방문건강관리 |
| 추가 정책 제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주거] 싱글 익스프레스(서울), 싱글 홈클리닝(서울)[정서] 슬기로운 1인생활(제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일자리] 마주봄매니저 운영(서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[고립] 우리동네 이웃사촌사업(부산) |

1 한국의 1인가구 현황

□ 한국의 가구구조, 4인가구 중심에서 1-2인가구로 소형화

-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,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4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였으나 2015년부터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음
 - 1인가구는 1990년 9.0%였으며, 2005년 20%대, 2019년 30%대로 진입하여 2022년 기준 34.5%로 나타남

<일반가구 및 1인가구 증가 추이(1990-2022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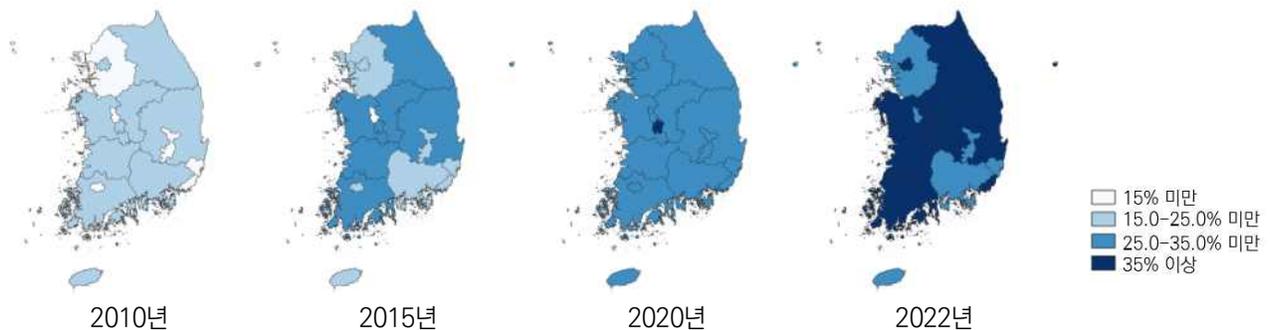
(단위: 명, %)

| 구분 | 일반가구 수 | 1인가구 수 |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|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| 1인 | 2인 | 3인 | 4인 이상 |
| 1990 | 11,354,540 | 1,021,481 | 9.0 | 13.8 | 19.1 | 58.1 |
| 2000 | 14,311,807 | 2,224,433 | 15.5 | 19.1 | 20.9 | 44.5 |
| 2005 | 15,887,128 | 3,170,675 | 20.0 | 22.2 | 20.9 | 37.0 |
| 2010 | 17,339,422 | 4,142,165 | 23.9 | 24.3 | 21.3 | 30.5 |
| 2015 | 19,111,030 | 5,203,440 | 27.2 | 26.1 | 21.5 | 25.2 |
| 2019 | 20,343,188 | 6,147,516 | 30.2 | 27.8 | 20.7 | 21.1 |
| 2020 | 20,926,710 | 6,643,354 | 31.7 | 28.0 | 20.1 | 20.1 |
| 2021 | 21,448,463 | 7,165,788 | 33.4 | 28.3 | 19.4 | 18.8 |
| 2022 | 21,773,507 | 7,502,350 | 34.5 | 28.8 | 19.2 | 17.6 |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주택 총조사」 각 연도

-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, 2010년 23.9%였던 1인가구는 2022년 34.5%로 증가

- 2010년 1인가구는 전남(29.8%)과 경북(28.8%)에서 높게 나타났으며, 2022년 1인가구는 대전(38.5%)과 서울(38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(2022년 기준)은 경기와 울산으로 각각 30.2%이며, 다음으로 인천(31.0%) 순

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(각 연도)

□ 수원시 1인가구 비율, 인근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

○ 수원시 1인가구(2022년)는 169,216명으로 전체 가구의 32.8%

- 수원시는 경기도 내 특례사인 고양시(27.9%)와 수원시 인근 지자체인 성남(32.5%), 화성(29.9%), 용인(24.9%)에 비해 1인가구 비율 높게 나타남

<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변화(2000-2022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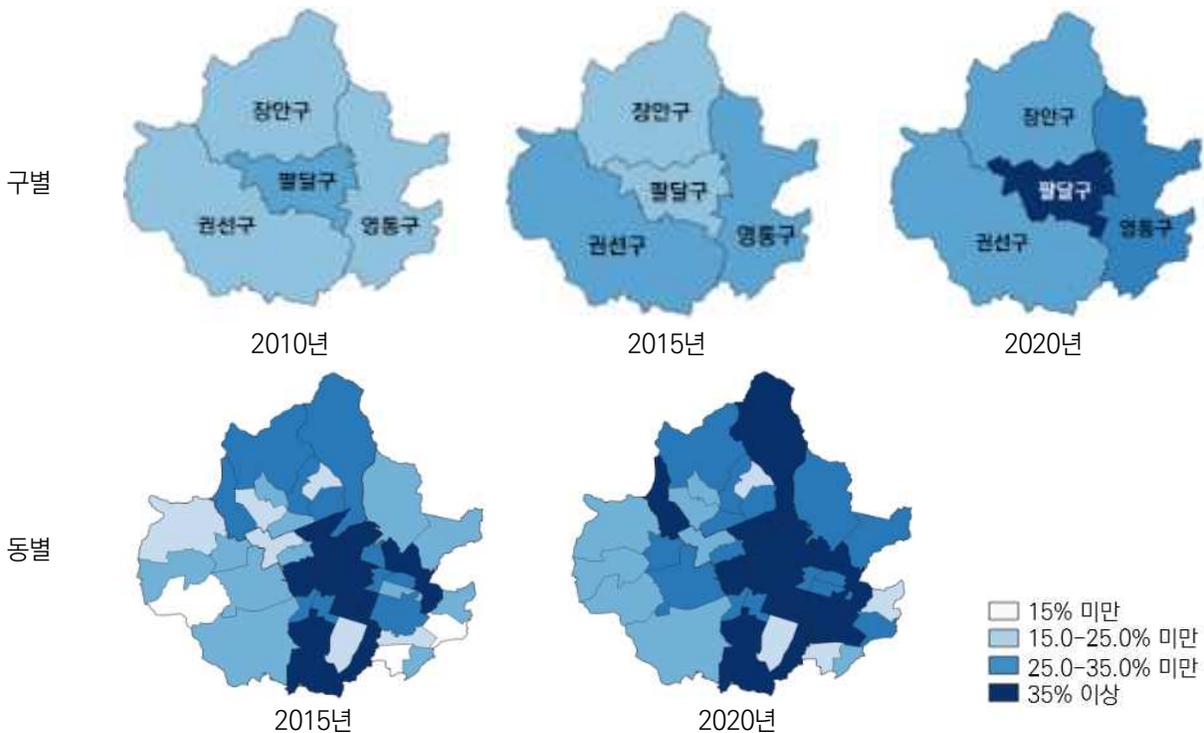
(단위: 명, %)

| 구분 | 2000년 | | | 2010년 | | | 2020년 | | | 2022년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| 전체가구 | 1인가구 | 비율 |
| 전국 | 14,391,374 | 2,224,433 | 15.5 | 17,574,067 | 4,142,165 | 23.6 | 21,484,785 | 6,643,354 | 30.9 | 22,383,187 | 7,502,350 | 33.5 |
| 경기도 | 2,691,510 | 337,555 | 12.5 | 3,908,059 | 777,360 | 19.9 | 5,294,836 | 1,406,010 | 26.6 | 5,617,507 | 1,634,147 | 29.1 |
| 수원 | 286,782 | 40,667 | 14.2 | 382,504 | 92,869 | 24.3 | 488,201 | 146,572 | 30.0 | 515,530 | 169,216 | 32.8 |
| 고양 | 224,429 | 22,310 | 9.9 | 306,701 | 58,392 | 19.0 | 404,705 | 100,409 | 24.8 | 425,383 | 118,717 | 27.9 |
| 용인 | 109,492 | 12,903 | 11.8 | 273,118 | 40,806 | 14.9 | 394,636 | 90,156 | 22.8 | 409,539 | 102,173 | 24.9 |
| 성남 | 277,140 | 35,966 | 13.0 | 341,644 | 77,242 | 22.6 | 379,640 | 11,5433 | 30.4 | 386,069 | 125,515 | 32.5 |
| 화성 | 57,069 | 8,635 | 15.1 | 163,038 | 29,792 | 18.3 | 336,715 | 91,164 | 27.1 | 373,006 | 111,697 | 29.9 |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주택 총조사」 각 연도

○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팔달구, 행궁동과 곡선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- 2020년 기준 구별 1인가구 비율은 팔달구가 40.1%로 가장 높고 영통구(30.1%), 장안구(29.0%), 권선구(29.0%) 순임
 - 2020년 기준 동별 1인가구 비율은 행궁동이 53.3%로 가장 높았고 곡선동(52.3%), 매산동(50.5%), 인계동(49.5%), 매교동(47.1%) 순

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(각 연도)

주: 2015년 영통3동, 망포2동, 호매실동은 분동되지 않았음

○ 수원시 청년 1인가구 비율은 38.5%로 전국,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

- 수원시 1인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, 중장년이 43.6%로 가장 많고, 청년(38.5%), 노년(17.4%) 순으로 나타남
- 수원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

<연령별 1인가구(2022)>

(단위: 명, %)

| 구분 | 만 20세 미만 | | 청년(20-34세) | | 중장년(34-64세) | | 노년(65세 이상) |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전국 | 53,088 | 0.7 | 2,161,262 | 28.8 | 3,314,584 | 44.2 | 1,973,416 | 26.3 |
| 경기도 | 8,828 | 0.5 | 464,035 | 28.4 | 796,924 | 48.8 | 364,360 | 1.8 |
| 수원 | 869 | 0.5 | 65,125 | 38.5 | 73,715 | 43.6 | 29,507 | 17.4 |
| 고양 | 394 | 0.3 | 29,568 | 24.9 | 59,684 | 50.3 | 29,071 | 24.5 |
| 용인 | 1,570 | 1.5 | 33,931 | 33.2 | 44,204 | 43.3 | 22,468 | 22.0 |
| 성남 | 584 | 0.5 | 38,726 | 30.9 | 58,223 | 46.4 | 27,982 | 22.3 |
| 화성 | 481 | 0.4 | 43,323 | 38.8 | 52,408 | 46.9 | 15,485 | 13.9 |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주택 총조사」

2 세대별 1인가구 특성

2-1 인구사회학적 특성

○ [학력] 1인가구의 53.8%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

- 청년 1인가구의 69.0%, 중장년 1인가구의 61.4%는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였으며, 노년 1인가구의 90.0%는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남

<학력>

(단위: %)

| 구분 | 고졸 이하 | 대학교 졸업 | 대학원 이상 |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전체 | 46.2 | 47.1 | 6.7 | |
| 세대별 | 청년 | 31.0 | 62.8 | 6.2 |
| | 중장년 | 38.6 | 51.7 | 9.7 |
| | 노년 | 90.0 | 8.7 | 1.4 |

○ [혼인상태] 1인가구의 63.7%는 미혼이며,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의 이혼·별거 가구 비율 높음

-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63.7%, 사별 15.9%, 이혼·별거 14.8%, 기혼(거주지 분리) 5.7% 순으로 나타남
-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이혼 비율(20-20.5%)이 높게 나타났으며, 노년 1인가구의 별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이는 중장년의 이혼 건수 증가, 졸혼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- 청년 1인가구의 96.5%는 미혼이며, 노년 1인가구의 67.7%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남

<혼인상태>

(단위: %)

| 구분 | 기혼(거주지 분리) | 미혼 | 이혼 | 별거 | 사별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전체 | 5.7 | 63.7 | 13.2 | 1.6 | 15.9 | |
| 세대별 | 청년 | 2.2 | 96.5 | 1.2 | 0.0 | 0.0 |
| | 중장년 | 8.8 | 63.8 | 20.5 | 2.0 | 4.9 |
| | 노년 | 5.5 | 3.2 | 20.0 | 3.6 | 67.7 |

- [주택유형] 1인가구 3명 중 1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, 중장년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 높게 나타남
 - 중장년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,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
 - 청년 1인가구는 오피스텔, 고시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

<주택유형>

(단위: %)

| 구분 | 단독주택 | 단독주택 (영업겸용) | 아파트 | 연립/다세대주택 | 비거주용 건물 | 오피스텔 | 고시원 | 기타 |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전체 | 30.0 | 4.0 | 27.0 | 20.3 | 1.3 | 13.7 | 3.2 | 0.6 | |
| 세대별 | 청년 | 26.9 | 2.4 | 17.5 | 24.6 | 1.3 | 21.8 | 4.6 | 1.0 |
| | 중장년 | 27.6 | 3.9 | 37.0 | 15.2 | 0.5 | 12.5 | 3.0 | 0.2 |
| | 노년 | 40.7 | 7.2 | 24.0 | 22.9 | 2.9 | 1.0 | 0.9 | 0.5 |

- [점유형태]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청년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/반전세 월세, 중장년 1인가구는 전세, 노년 1인가구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노년 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점유형태>

(단위: %)

| 구분 | 주거안정성 | | | 보증금 있는 월세/반전세 월세 | 보증금 없는 월세 | 사글세 또는 연세 | 공공 임대 주택 | 무상 | 기타 |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| 자가 | 전세 | 월세 | | | | | | | |
| 전체 | 54.4 | 21.5 | 32.9 | 33.0 | 3.4 | 0.4 | 7.0 | 1.6 | 0.2 | |
| 세대별 | 청년 | 40.9 | 7.2 | 33.7 | 47.9 | 2.8 | 0.3 | 6.0 | 2.1 | 0.0 |
| | 중장년 | 60.5 | 27.9 | 32.6 | 27.9 | 4.2 | 0.6 | 4.8 | 1.6 | 0.3 |
| | 노년 | 66.6 | 34.4 | 32.2 | 16.1 | 2.7 | 0.0 | 13.2 | 0.9 | 0.4 |

2-2 1인가구의 삶과 인식

○ [1인가구 지속기간] 1인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10년,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 지속기간 늘어남

- 1인가구 지속기간은 청년 1인가구 4.7년, 중장년 1인가구 12.2년, 노년 1인가구 15.4년으로 나타남

<1인가구 지속기간>

(단위: %, 년)

| 구분 | | 3년 미만 | 3-5년 미만 | 5-10년 미만 | 10년 이상 | 평균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전체 | | 20.8 | 14.1 | 24.4 | 40.8 | 10.0 |
| 세대별 | 청년 | 38.7 | 21.0 | 29.7 | 10.6 | 4.7 |
| | 중장년 | 11.2 | 10.9 | 21.5 | 56.4 | 12.2 |
| | 노년 | 7.4 | 7.8 | 20.4 | 64.4 | 15.4 |

○ [1인가구 만족도] 청년 1인가구의 86.0%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

- 1인가구 10명 중 6-7명(66.2%)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, 청년 1인가구의 만족도 높게 나타남

-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

<1인가구 만족도>

(단위: %)

| 구분 | | 불만족 | 보통 | 만족 | 평균 |
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전체 | | 6.6 | 27.2 | 66.2 | 70.9 |
| 세대별 | 청년 | 2.4 | 11.6 | 86.0 | 79.5 |
| | 중장년 | 9.9 | 30.5 | 59.6 | 67.5 |
| | 노년 | 7.5 | 49.1 | 43.4 | 62.3 |

○ [1인가구 이유] 청년·중장년 1인가구는 자발적 이유, 노년 1인가구는 비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로 생활함

- 청년 1인가구는 취업과 학업(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/ 시험, 자격증, 취업준비 등)과 같은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되며 중장년은 본인의 일자리(29.9%)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, 별거, 사별(24.1%) 때문에 1인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노년은 배우자와의 이혼, 별거, 사별이 1인가구의 주원인임

<1인가구 이유(1순위)>

(단위: %)

| 구분 | | 자발적 이유 | | | | | 비자발적 이유 | | | | | 기타 |
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직장 또는 학교 | 취업 | 개인 편의 (자유) |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| 이혼/ 별거/ 사별 | 가족의 사망 | 이민/ 분가 | 가족 불화 | | | |
| 전체 | | 62.5 | 34.9 | 3.5 | 18.4 | 5.7 | 36.3 | 27.2 | 2.6 | 3.1 | 3.4 | 1.0 |
| 세대별 | 청년 | 89.3 | 58.7 | 6.5 | 18.3 | 5.8 | 9.6 | 2.1 | 0.9 | 2.3 | 4.3 | 1.1 |
| | 중장년 | 64.3 | 29.9 | 2.4 | 26.1 | 5.9 | 34.5 | 24.1 | 4.2 | 3.0 | 3.2 | 1.2 |
| | 노년 | 10.3 | 1.7 | 0.4 | 2.9 | 5.2 | 89.5 | 80.1 | 2.4 | 4.6 | 2.4 | 0.5 |

○ [1인가구 힘든 점] 1인가구 10명 중 9명은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을 느끼며, 가장 힘든 점은 혼자 생활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

-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

<1인가구 힘든 점(1순위)>

(단위: %)

| 구분 | 힘든 점 있음 | | | | | | | | | 힘든 점 없음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| 경제적 어려움 |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| 식사 해결의 어려움 | 안전에 대한 불안감 | 여가 및 문화 생활이나 체육활동의 어려움 | 주거 관리의 어려움 | 정보 접근의 어려움 | 기타 | | | |
| 전체 | 91.8 | 21.0 | 44.8 | 14.5 | 5.2 | 1.1 | 3.2 | 1.2 | 0.8 | 8.2 | |
| 세대별 | 청년 | 93.7 | 23.8 | 34.6 | 19.2 | 8.1 | 1.6 | 3.6 | 1.7 | 1.1 | 6.3 |
| | 중장년 | 90.5 | 19.2 | 50.1 | 11.2 | 3.7 | 0.8 | 3.7 | 0.9 | 0.9 | 9.5 |
| | 노년 | 91.1 | 19.6 | 52.5 | 12.6 | 2.9 | 1.0 | 1.5 | 1.0 | 0.0 | 8.9 |

- [향후 원하는 가구, 거주 형태] 청년 1인가구의 63.8%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어함
 - 청년 1인가구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, 노년 1인가구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

<향후 원하는 가구, 거주형태>

(단위: %)

| 구분 | 지금처럼 혼자 | 원래의 가족과 함께 |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|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| 공동주택 거주 | 기타 | 잘 모르겠다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|
| 전체 | 31.4 | 7.6 | 40.8 | 4.4 | 4.8 | 0.3 | 10.7 |
| 세대별 | 청년 | 18.2 | 6.5 | 63.8 | 6.5 | 0.3 | 4.3 |
| | 중장년 | 29.5 | 9.9 | 39.3 | 4.1 | 7.2 | 10.0 |
| | 노년 | 59.8 | 4.9 | 1.7 | 1.0 | 8.3 | 23.9 |

2-3 1인가구의 경제활동과 소비

- [경제활동 참여상태] 1인가구 10명 중 7-8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며, 중장년 1인가구의 취업자 비율 가장 높음
 - 중장년 1인가구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80.8%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, 청년 1인가구의 10.1%는 실업자로 청년의 고용 불안정성 확인할 수 있음

<경제활동 참여상태>

(단위: %)

| 구분 | 경제활동인구 | | | | | | | | 비경제 활동인구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
| | 취업자 | 실업자 | | | | | | | | |
| | | 임금 근로자 | 공공 일자리 | 고용주 | 자영업자 | 무급가족 종사자 | | | | |
| 전체 | 77.9 | 70.6 | 55.8 | 2.2 | 4.5 | 7.8 | 0.4 | 7.3 | 22.1 | |
| 세대별 | 청년 | 87.8 | 77.7 | 65.4 | 1.7 | 5.8 | 4.6 | 0.2 | 10.1 | 12.2 |
| | 중장년 | 87.8 | 80.8 | 63.8 | 0.6 | 5.1 | 11.1 | 0.2 | 7.0 | 12.1 |
| | 노년 | 39.1 | 36.4 | 21.5 | 6.3 | 1.0 | 6.7 | 0.9 | 2.7 | 61.0 |

○ [소득과 소비]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적정소득에 비해 월평균 소득 낮음

- 중장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, 필요소득, 적정소득 모두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
- 생활비 또한 중장년 1인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<소득과 소비>

(단위: 만원)

| 구분 | 월평균 소득 | 필요 소득 | 적정 소득 | 생활비 |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체 | 259.2 | 218.9 | 260.1 | 150.4 | |
| 세대별 | 청년 | 250.1 | 233.3 | 282.7 | 136.8 |
| | 중장년 | 320.9 | 250.3 | 292.8 | 180.7 |
| | 노년 | 148.0 | 127.2 | 150.1 | 112.2 |

○ [생활비 지출 비중] 1인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식비가 가장 높음. 세대별로 살펴보면,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, 중장년 1인가구는 사적 이전, 노년 1인가구는 보건·의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- 1인가구의 생활비 지출 비중은 식비가 35.8%로 가장 높고, 주거비(19.7%), 의류/잡화비(7.2%), 교통비(7.0%) 순임
-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와 의류/잡화비, 중장년 1인가구는 교통비, 사적이전, 노년 1인가구는 식비, 보건·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생활비 지출 비중>

(단위: %)

| 구분 | 식비 | | 주거비 | 의류/잡화비 | 교통비 | 통신비 | 교육비 | 보건·의료비 | 문화·여가비 | 사적 이전 | 기타 |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| 식료품 | 외식비 | | | | | | | | | | |
| 전체 | 22.4 | 13.4 | 19.7 | 7.2 | 7.0 | 6.2 | 1.8 | 6.1 | 6.2 | 3.4 | 6.7 | |
| 세대별 | 청년 | 19.2 | 16.9 | 22.5 | 8.0 | 6.9 | 5.8 | 2.2 | 3.3 | 6.9 | 2.6 | 5.6 |
| | 중장년 | 21.5 | 13.5 | 18.4 | 7.4 | 8.4 | 6.4 | 2.1 | 5.6 | 5.4 | 4.0 | 7.4 |
| | 노년 | 30.1 | 6.7 | 17.1 | 5.2 | 4.4 | 6.4 | 0.7 | 12.4 | 6.5 | 3.3 | 7.2 |

2-4 1인가구의 주거와 안전

○ [주거비 부담 정도]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 10명 중 6-7명은 주거비 부담 느낌

- 매월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가구의 67.9%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,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비가 부담된다는 비율 높게 나타남

<주거비 부담 정도>

(단위: %)

| 구분 | 부담되지 않음 | | | 보통 | 부담됨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부담되지 않음 | 별로 부담되지 않음 | 부담되지 않음 | | 약간 부담 | 매우 부담 | | |
| 전체 | 12.4 | 5.4 | 7.1 | 19.7 | 67.9 | 43.3 | 24.6 | |
| 세대별 | 청년 | 11.9 | 4.5 | 7.4 | 20.7 | 67.4 | 46.1 | 21.3 |
| | 중장년 | 13.2 | 7.5 | 5.7 | 19.2 | 67.6 | 40.6 | 27.0 |
| | 노년 | 12.3 | 2.1 | 10.2 | 16.7 | 71.0 | 38.6 | 32.4 |

주) 매월 주거비(월세, 사글세)를 지출하는 395명을 대상으로 질문

○ [주거선택 요인]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, 노년 1인가구는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을 선호

- 1인가구의 주거 선택 요인은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(43.2%),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(39.6%), 주택상태가 좋은 곳(29.0%) 순
-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, 노년 1인가구는 거주 경험이 있는 곳,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함

<주거 선택 요인(1+2순위)>

(단위: %)

| 구분 |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|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| 주택 상태가 좋은 곳 | 거주 경험이 있는 곳 |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 |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| 주택에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 |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 | 기타 |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전체 | 43.2 | 39.6 | 29.0 | 19.7 | 18.8 | 18.5 | 7.8 | 7.5 | 4.7 | |
| 세대별 | 청년 | 54.2 | 41.5 | 35.1 | 7.7 | 12.8 | 11.2 | 8.7 | 8.2 | 5.5 |
| | 중장년 | 44.3 | 37.8 | 27.4 | 17.1 | 24.2 | 13.4 | 9.5 | 9.0 | 5.3 |
| | 노년 | 20.3 | 39.9 | 21.1 | 47.4 | 18.6 | 42.7 | 2.4 | 3.1 | 1.9 |

주) 기타: 서울로 접근이 용이한 곳 등

○ [거주지 안전성] 청년 1인가구의 15.9%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불안하다고 인식

- 1인가구 10명 중 5-6명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고 인식함
- 노년 1인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거주지 안전성>

(단위: %)

| 구분 | 불안하다 | | | 보통이다 | 안전하다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| | 매우 불안하다 | 약간 불안하다 | | | 대체로 안전하다 | 매우 안전하다 |
| 전체 | 12.0 | 2.1 | 9.9 | 31.3 | 56.7 | 44.8 | 11.8 |
| 세대별 | 청년 | 15.9 | 2.2 | 13.7 | 26.2 | 57.9 | 14.9 |
| | 중장년 | 12.3 | 2.5 | 9.8 | 35.3 | 52.3 | 10.3 |
| | 노년 | 4.1 | 1.0 | 3.1 | 32.5 | 63.4 | 9.4 |

○ [거주지 불안요인] 중장년 1인가구는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져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인식

-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원인은 CCTV, 출입구 보안시설,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
- 청년 1인가구는 주거지의 위치, 중장년 1인가구는 비상시 대처하기 어려워서, 노년 1인가구는 지하, 반지하,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때문에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응답

<거주지 불안 원인(1+2순위)>

(단위: %)

| 구분 | 안전 시설 미비 | 주거지의 위치 | 비상 시 대처 하기가 어려워서 |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 | 주택 관리인의 부재 |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|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|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|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 | 기타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전체 | 36.0 | 23.6 | 23.3 | 21.8 | 17.2 | 16.4 | 15.6 | 11.2 | 8.1 | 3.8 | |
| 세대별 | 청년 | 40.3 | 25.2 | 16.7 | 24.3 | 15.7 | 16.9 | 12.6 | 14.4 | 10.9 | 0.0 |
| | 중장년 | 29.8 | 21.6 | 31.1 | 22.6 | 19.7 | 13.6 | 18.1 | 9.4 | 4.8 | 6.7 |
| | 노년 | 44.6 | 24.7 | 20.9 | 0.0 | 12.2 | 29.9 | 22.2 | 0.0 | 9.7 | 12.3 |

주)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129명을 대상으로 질문

2-5 1인가구의 건강과 사회적관계망

- [건강]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며, 중장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
 - 신체건강은 청년 1인가구의 48.3%, 중장년 1인가구의 33.8%, 노년 1인가구의 30.6%가 양호하다고 인식함
 - 중장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
<신체 및 정신 건강>

(단위: %)

| 구분 | 건강하지 않다 | | | 보통이다 | 건강하다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전혀 건강하지 않다 | 별로 건강하지 않다 | 대체로 건강하다 | | 매우 건강하다 | | | | |
| 신체 건강 | 전체 | 22.5 | 2.9 | 19.6 | 38.9 | 38.6 | 31.4 | 7.2 | |
| | 세대별 | 청년 | 19.0 | 1.5 | 17.5 | 32.7 | 48.3 | 34.3 | 14.1 |
| | | 중장년 | 22.6 | 4.4 | 18.2 | 43.6 | 33.8 | 30.1 | 3.7 |
| | | 노년 | 28.5 | 2.3 | 26.3 | 40.9 | 30.6 | 28.7 | 1.9 |
| 정신 건강 | 전체 | 20.3 | 4.2 | 16.0 | 36.6 | 43.1 | 34.1 | 9.1 | |
| | 세대별 | 청년 | 19.4 | 5.0 | 14.5 | 31.9 | 48.7 | 34.7 | 14.1 |
| | | 중장년 | 21.4 | 5.2 | 16.1 | 39.1 | 39.5 | 32.3 | 7.2 |
| | | 노년 | 19.6 | 0.9 | 18.8 | 40.0 | 40.4 | 36.5 | 3.8 |

- [우울증] 청년 1인가구의 우울 상태 높음
 - 1인가구의 71.2%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(정상)이며, 1인가구의 28.8%는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
 - 청년 1인가구의 33.6%는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남

<우울증>

(단위: %)

| 구분 | 정상 | 우울증 치료 필요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| | 치료 고려 | 치료 요함 | 적극 치료 | | |
| 전체 | 71.2 | 28.8 | 19.5 | 6.8 | 2.4 | |
| 세대별 | 청년 | 66.4 | 33.6 | 21.5 | 8.3 | 3.7 |
| | 중장년 | 72.4 | 27.6 | 18.1 | 7.5 | 2.0 |
| | 노년 | 77.8 | 22.2 | 18.5 | 2.7 | 1.0 |

○ [사회적 고립] 노년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

- 1인가구의 20.5%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, 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비율 높게 나타남

<사회적 고립>

(단위: %)

| 구분 | | 사회적으로 고립 |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음 |
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전체 | | 20.5 | 79.5 |
| 세대별 | 청년 | 14.1 | 85.9 |
| | 중장년 | 21.0 | 79.0 |
| | 노년 | 31.2 | 68.8 |

주) 사회적 고립은 1)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2)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3)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라는 3가지 문항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

3 정책제언

□ 수원시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 상이, 세대별 특성에 맞는 추가 정책 발굴 필요

○ 주거 안전성 낮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주거 안정망 구축, 정서적 회복 지원 필요

- 수원시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빛 청년존,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
- 2024년 7월부터는 학업과 취업으로 수원에 진입하는 자발적 1인가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유스호스텔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 거처를 제공
- 주거 취약 1인가구에게 이사차량 지원,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주거 정책,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(예: 제주도의 슬기로운 1인생활) 추가 발굴 필요

○ 세대 내 이질성(소득, 주거 격차)이 높으며, 정신건강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, 지역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필요

- 중장년 1인가구는 재취업 기회가 낮고 좋은 일자리로 이직이 어려움. 2024년부터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,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 강화 필요
- 이직과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 마주봄매니저(서울) 도입 고려

○ 다중노쇠로 인해 신체,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, 가족과 사회의 돌봄을 받는 비율 높은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 방지 및 건강관리 사업 필요

- 노년 1인가구는 범죄 대처에 미흡하고 외로울 때 아무것도 못하는 비율 높음. 또한 사회적 고립 비율 또한 높음. 노년 1인가구의 고립 예방을 위해 수원시는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사업,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추가로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우리동네 이웃사촌 사업 등의 도입 고려

| 구분 | 청년 1인가구 | 중장년 1인가구 | 노년 1인가구 |
|---------------|--|---|--|
| 특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 불안전성, 주거비 부담, 주거 불편함 높음 • 우울 비율 높으며, 자살 생각의 이유는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신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음주와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음 • 차별이나 무시, 은둔경험이 많으며, 10명 중 1명은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 안정성 높지만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 높음 • 범죄 대처에 미흡, 외로울 때 아무것도 못하는 비율, 사회적 고립 비율 높음 |
| 정책방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 안전망 구축, 정서적 회복 지원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적 지원(중장년 재취업), 지역사회와 연계, 돌봄 네트워크 구축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고립 방지(돌봄망 확대, 디지털 기술 활용), 건강관리(홈헬스케어, 운동 등) |
| 기존 정책 (~2023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주거] 새빛 청년존, 청년 월세지원, 수원전월세 상담센터,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• [정서적 회복] 청년고민상담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지역자원연계]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사회적 고립]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,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, AI 활용 위기 가구 발굴 지원 • [건강관리] 방문건강관리 |
| 신규 정책 (2024~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빛호스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년교육프로그램, 평생교육 프로그램 | |
| 추가 정책 제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주거] 싱글 익스프레스(서울), 싱글 홈클리닝(서울) • [정서] 슬기로운 1인생활(제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일자리] 마주봄매니저 운영(서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고립] 우리동네 이웃사촌 사업(부산) |

✓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

- 조사목적 : 수원시 1인가구 실태를 파악하여 수원시 1인가구 정책수립에 기여
- 조사대상 : 수원시 거주 1인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,075명
- 조사방법 : 혼합조사(40대 이하 웹조사, 50대 이상 웹조사, 대면조사 병행)
- 조사시기 : 2024.03.28.-2024.04.24.
- 조사내용 : 1인가구의 삶, 인식, 경제, 주거, 안전 등 총 9개 영역, 124개 문항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